

A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from the perspective of Catholic Education

Yujin Jang*

Gacho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ain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in terms of Catholic education. Despite the advantages of character education in Catholicism,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especiall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TENTS The possibility of Catholicism in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was examined, and an attempt was made to link Catholic elements with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character education elements, and examples of practical activities of Catholic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were presented.

RESULTS First, Catholic education had advantages in character education which are Catholicism emphasizes the original grace not the original sin, Catholic universality and openness, the aspect of frugality and ecological responsibility. Second, in the Nuri curriculum, 'people who living together' is in the same context as Catholic life education. Third, virtue-centered character education has limitations. Fourth, an example of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was presented through a narrow, broad approach. Finally, teach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easibility of life, and that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containing examples of activities should be produced and distributed so that they can be easily used in Catholic churches.

KEY WORDS Character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Catholic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ractice

This study supported by the Kang Elisabeth Academic Research Fund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rresponding to Yujin J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ersity)
E-mail : yjjang@gacho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가톨릭 교육 관점에서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고찰

장유진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 인성교육과 가톨릭시즘을 연계하고자 하였다. 가톨릭이 갖는 인성교육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 특히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가톨릭적 설명이 제시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유아 인성교육에 있어 가톨릭의 가능성을 살피고, 가톨릭적 요소와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인성교육 요소와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의 실제 활동 예시를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은 원죄가 아닌 본래의 은총에 강조를 둔다는 점, 가톨릭의 보편성과 개방성, 검소함과 생태학적 책임의 측면에서 인성교육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누리과정에서는 인성교육에 있어 ‘더불어 사는 사람’이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가톨릭의 생명 존중 교육과 동일한 맥락이다. 셋째,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은 실제의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넷째, 협의적, 광의적 접근을 통해 인성교육 활동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교사가 삶의 성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가톨릭교회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와 활동자료를 담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제작, 배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주제어 인성교육, 유아교육, 가톨릭 교육, 인성교육 실제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강엘리사벳 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Received July 7, 2022 / Revised August 10, 2022 / Accepted August 19, 2022

I. 서 론

2015년 7월,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내실화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인성교육은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인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인성은 성품, 품성, 기질, 개성, 성격, 사람됨, 전인성, 인격, 도덕성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지만, 인간다운 면모, 인간다운 성품과 덕성이라는 의미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Jeong, 2017: 144). 종교는 인간 개인의 삶에도,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결국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과 기준을 사회에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해크먼(James J. Heckman, 시카고대) 교수는 유아 및 아동을 위한 경제적 투자와 취약계층이나 범죄를 저지른 성인을 위한 경제적 투자의 결과를 비교하고, 동일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성인을 위한 투자보다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투자가 4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행동적 패턴이 영·유아기에 한 번 정해지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유아기는 인성의 기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교육효과도 가장 크며, 이 시기에 형성된 습관 및 태도는 평생을 좌우한다(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2009: 11). 이는 종교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유아들이 종교의 품 안에서 타인과 생명을 배려하고 소중히 하는 이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종교적 측면 및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앙의 신비가 어린이의 도덕생활과 종교생활에 끼치는 효과를 다 밝혀 주어야 한다며, 유아와 아동의 종교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가톨릭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가톨릭적 설명이 제시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종교교육 연구가 활발한 개신교 분야와 비교하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누리와 정과 가톨릭 종교교육 과정의 조화를 위해서는 인성교육 측면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Kim & Kim, 2019: 165), 가톨릭 사상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것, 사랑과 봉사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종교교육과 도덕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신앙성숙도 및 종교교육 여부는 유아 자녀의 높은 도덕성과(Park & Shin, 2013: 46), 청소년의 종교성은 도덕성 발달(Cho, 2008: 153)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인성 혹은 인성교육은 도덕성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톨릭 측면에서의 인성교육, 특히 유아의 인성교육을 논의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유아교육 및 종교교육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톨릭 인성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II.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의 가능성

1.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이해

어떤 면에서 가톨릭의 입장은 창세기 3장-좀 더 고전적인 개신교의 입장-보다는 창세기 1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의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원죄설” 교리를 이끌어 냈고, 가톨릭 또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개신교의 관점과는 달리, 가톨릭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죄성보다는 하느님의 모상성, “원죄(original sin)” 보다는 “본래의 은총(original grace)”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Groome, Jo trans., 2021: 109).

가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그룹에 따르면, 가톨릭은 인간이 가진 죄의 경향보다는 인간성의 긍정과 본질적인 선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느님의 모상(Imago Dei) 교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남자와 여자, 모든 피부색, 계층, 종교의 사람들-의 평등한 존엄성을 증언한다. 본래의 은총(original grace)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고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가톨릭의 교리는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Barron 주교는 여타의 종교와 가톨릭시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원칙을 ‘육화(肉化, Incarnation)’라고 말한다(Barron, Jeon trans., 2019: 18). ‘육화’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남,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고대의 신들은 신과 인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신은 인간의 숭배를 받는 존재, 인간은 신과 비교하여 비루한 존재였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육화’에 따르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 결과 사람도 성부와 성자, 성령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도록 불림을 받았으며, ‘신화(神化)’되었다. Barron 주교는 지금껏 어느 종교도 이렇게 충만한 사랑을 전파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믿음은 인성교육의 첫 번째 시작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기독교적 인간관은 원죄를 가진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인간은 원조의 죄로 근본적으로 타락했으며, 죄의 경향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가톨릭은 완전한 타락의 개념을 거부하면서, 그 대신에 인간이 가진 하느님의 모상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악보다는 선을 행할 능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Groome, Jo trans., 2021: 109).

인간은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했던 대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러리라고 예상했던 것을 일반적으로 그들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영유아를 둘러싼 주요한 타자

(significant others)인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로부터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얻게” 되는데, 영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그만큼의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Groome, Jo trans., 2021: 135). 이는 인간 심리이론에서 언급되는 거울자아(looking glass self) 이론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타인의 평가와 기대가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유아를 둘러싼 주요한 타자들이 유아를 태생적으로 ‘착한’ 존재로 바라보며 착할 것을 기대하는지, 혹은 ‘악한’ 존재로 바라보며 악할 것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유아의 발달은 달라질 수 있다. 인간다운 따뜻한 마음을 갖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아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때, 유아를 착하고 선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는 유아를 대하는 부모와 교사의 생각과 행동, 양육과 교육에 그대로 반영된다. 결국 교사나 부모가 유아를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로 믿고 유아 개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되새길 때,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포용과 정의를 통한 함께 더 나아지기

가톨릭을 다른 종교와 구별 짓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포용’이다.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다른 종교까지 모두 포용하며 발전해 왔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는 교회의 쇄신(현대화)과 그리스도인 일치에 재건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제 2차 공의회는 가톨릭교회는 여타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타 종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을 천명하였다. 결국, 다른 환경과 다양한 요구에 대한 개방성은 가톨릭시즘의 포괄적 본질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Won, 2011: 23). 이러한 포용은 보편성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데, Groome는 자신의 저서에서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톨릭 보편성은 모든 사람의 복지, 권리, 정의를 위한 헌신과 모든 이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가톨릭 보편성은 인간의 다양성을 환영하고,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개방적이며, 모든 인류와 형제자매로 연대하며 살아간다. 가톨릭 보편성은 열린 지평과 지구촌 의식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특수한 문화와 정체성의 뿌리를 소중히 여긴다. 보편성을 가진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포용적이고, 차별과 분리주의적인 정서에 서 자유로우며, 팔을 벌려 “낮선 이들”,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환영한다(Groome, Jo trans., 2021: 572).

가톨릭은 인간의 다양성을 환영하고 다른 전통과 문화로부터 배우는 것에 개방적이다.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와는 이질적인 생각과 종교를 가진 다양한 사

람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가톨릭적 교리는 유아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가톨릭에서 인간은 되어 가는 존재, 알아가는 존재, 창조해 가는 존재이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 가는 becoming의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Groome, Jo trans., 2021: 120). 타인을 포용하고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오늘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이다. 유아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가톨릭에서의 인간관과 동일하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며, 교육은 무엇‘이기(being)’가 아닌 무엇이 ‘되기(becoming)’의 과정이다. 지금의 나, 지금 나의 지식, 기술, 가치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나, 새로운 지식, 기술, 가치를 향해 부단히 나를 투신하는 과정이다(조용환, 2009: 250). 결국 교육은 단순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보다 ‘더 나아지기(becoming better)’를 지향한다. 더불어 나 혼자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기(becoming better together)’를 지향한다.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참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 그 사회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13: 12). 라는 구절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함께 더 나아지기는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의 의미와도 동일하다. 결국 타인을 개방적으로 포용하고, 정의에 민감하며,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를 지향하는 가톨릭은 유아 인성교육의 목표 정립에 좋은 함의를 준다.

3. 환경교육과 생태적 신앙

최근 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환경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인간과 생명, 인간과 자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문제이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유아교육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중요한 인간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단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0년 1월 1일자 세계 평화의 날에 발표한 「창조주 하느님과 평화, 모든 조물들과의 평화」는 환경문제만을 다룬 최초의 교황 문헌이다(Yu, 2000: 9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태학적 위기는 도덕적 위기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처에 만연한 ‘생명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도 창조의 질서와 통합에 대한 존중’의 상실 그 뚜렷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지구는 궁극적으로 공동의 유산으로 그 결실은 당연히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안전한 환경을 누릴 우주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교황은 결국 소비주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전환되도록 이끌어 줄 생태학적 책임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국제적, 종교 간의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일부 국가와 사람들의 부주의하고 이기적인 습관으로 인해 결국 인류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므로, ‘검소, 겸손, 절제 및 희생 정신’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도덕성은 미래세대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에 이르러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일부 환경론자들은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리스도교 세계관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자연의 절대적 통치자이며, 자연은 단지 인간의 효용가치를 위해 이용되고 착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생태계 위기에 그리스도교가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리스도교의 ‘인간중심적 세계관(anthropocentric world-view)’과 ‘이원론(dualism)’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Jeong, 2005: 23). 예를 들어 성서의 창세기 1장 28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는 구절은 다스림(dominion)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성경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자연관은 ‘하느님 중심적 자연관’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역할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섬기는 청지기(stewardship)의 역할이다(McDonagh, 1994: 130).

가톨릭에서 생태계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2-1226)는 평화의 모범인 인물로 자연과의 형제애를 보여주었다. 그는 형제애를 통해 피조물들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연 안의 현존하는 하느님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갔다(Jeong, 2005: 85). 평생을 청빈하게 살며 자연을 사랑한 그는 창조물에 대한 우애로운 접근 방법(fellowship approach)을 제시하였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교적 부름을 하느님-인간과 자연까지 확대하여, 인간과 자연의 분열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모든 창조계를 포괄하도록 확장하였고 생태계 위기를 맞서는 예수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Song, 2013: 12).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의 혜택과 오감을 사로잡는 다양한 영상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자연의 가치와 경이로움은 희석되기 마련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절제와 검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톨릭은 유아 인성교육,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앗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Isa 11: 6 & 9).

Ⅲ. 누리과정과 가톨릭 교육의 연계

1. 유아교육의 이해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 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교육,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한다.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문교부령에 의해 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1998년까지 6차례 고시되었다. 이후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으로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2011년 5세 누리과정, 2012년과 2015년 누리과정 개정 고시에 이어 현재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하나의 핵심적인 흐름을 가지는데, 영유아의 흥미중심, 활동과 경험중심, 개방적 질문과 능동적 학습 지향을 특징으로 하는 ‘유아중심 교육’이 그것이다.

한편 영유아교육에서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교육 분야는 영유아교육일 것이다. 영유아는 발달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신체 및 정서 발달이 미숙하므로, 자신을 둘러싼 기본적인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는 식생활이나 정리정돈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올바른 습관 교육을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기본생활습관이 이러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생활습관은 타인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배려하는 행동,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며 다른 친구를 존중하는 것, 물건을 아껴쓰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하지만 당연한 교육은 사실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유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나 성인들이 이러한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결국 여타 학교급과 비교하여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유독 강조되는 영유아 시기는 인성교육을 위한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아교육을 유아에게 ‘특정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유아교육은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것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을 지식교육으로 생각한다면, 유아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하는 지식은 성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기 때문이다. 책상에 앉은 유아에게 맞춤법과 덧셈 뺄셈을 가르치고,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유아교육이 아니다. 진정한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지식보다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맞춤법 보다는 한글과 이야기에 대한 흥미, 덧셈보다는 논리적 사고의 경험, 노래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목표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성인들은 놀이를 학습의 수단 혹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Jang, 2018: 122)하지만, 유아에게 놀이는 삶의 목적이자 삶 그 자체이다. 유아가 놀이를 통해 생긴 의문점을 직접 끝까지 찾아보고, 친구

와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유아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 유아는 발달 특성상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추상적인 사고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식 중심이 아닌 실재와 체험 중심, 놀이 중심이어야 한다. 유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성인의 경우,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하지 않고 유아들이 놀기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유아는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성장한다. 구조화된 수업 시간이 아닌 생활 속에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한다. 유아에게는 놀이와 학습, 생활과 습관이 분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형식적 교육과정 안에서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실물 교재교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잠재적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주요한 성인의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2. 누리과정의 인성교육 요소

누리과정은 수차례 개정되고 수정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각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을 찾을 수 있는데, 1998년 6차 유치원교육과정 이후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011년 누리과정에서는 ‘민주 시민’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며, 2012년 표준보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언급되었다. 최근의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언급하였는데,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유아교육은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과목의 구분이 없으며,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적 발달을 추구한다.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9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실제 누리과정의 해설서에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의미한다’(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19: 30) 라고 쓰여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특성 및 가톨릭 교육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생명 존중 교육’과 동일한 맥락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가 발간한 한국 가톨릭 유아교육 지침서(2011)를 살펴보면, 가톨릭 유치원의 교육과정 설명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생명 존중 교육이다. 가톨릭 유치원은 생명 존중을 강조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생명 존중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며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인격을 형성하는 인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Board of Education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2011: 11).



[그림 1]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 (교육부, 2019: 34)
 [Figure 1] The Objectives of the 2019 Nuri Curriculum

IV.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제안

1. 덕목 범주 인성교육의 한계

유아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2008년 이후 급증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제시한 인성교육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유아인성교육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은 덕목을 중심으로 한 덕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력, 배려, 존중, 나눔, 질서, 효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주로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덕목 중심의 교육활동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아 인성덕목의 범주를 기본생활습관, 사회정서, 윤리도덕 덕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Choi & Lim, 2013: 7)도 있다.

가톨릭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의 요소를 발췌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인성교육이 아닌 기존의 가톨릭 유아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장상연합회에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핵심 덕목으로 구성하였다(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the Korean Catholic Women's Association, 2008: 20).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이며, 이 핵심 덕목들이 생활주제와 전례력을 고려한 활동계획안에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와 관련한 덕목들은 매우 중요하

지만,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이 덕목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개신교 관련 일부 연구에서도 성경에 기반한 6가지 인성 덕목(경건, 화평, 기쁨, 양선, 사랑, 인내)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덕목들을 유아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할지를 논의하지는 않았다. 한국가톨릭신학학회에서 발간한 인성교육 연구서(Seo, Kim, & Jeong, 2005: 7)는 초, 중, 고등학교의 인성교육만을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선행연구들의 덕목 중심 인성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에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떻게 ‘존중’을 가르칠 것인지, 유아나 아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유아의 경우에는 특히 실물 교재교구를 이용한 놀이 중심, 유아중심,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생활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덕목의 나열만으로는 실제 교육과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 실제

앞선 논의와 같이 덕목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방안은 구체적 실재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영유아 교육 경험이 적은 종교교육 현장 주일학교의 성직자나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의 조화를 위해서는 인성교육 측면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Kim & Kim, 2019: 165)처럼 유아 인성교육은 가톨릭 교육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랑, 포용, 생명에 강점을 가진 가톨릭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제에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육의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감사와 행복이라고 여겨진다. 그날 느끼는 기분으로서의 감사는 정서적 특질뿐만 아니라 순간의 정서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McCullough, Tsang, & Emmons, 2004), 감사하는 기분을 조작하면 감사 특질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Yun & Jo, 2011: 4).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어 감사일기를 쓰거나 나의 행복을 세어보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온전히 사랑받는 행복한 유아는 사랑을 줄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며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감사-인성교육은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며, 실천적 측면에서도 인성교육에 갖는 함의가 크다. 세상을 선물로 보는 감사의 관점은 가톨릭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이슈이며,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중 하나이다(Groome, Jo trans., 2021: 178).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 실제의 구성에 있어서, 효용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협의적 접근과 광의적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Choi & Lim, 2013: 31)를 참고하여 실제 예시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협의적 접근 방안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유아와 함께 하는 주일학교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협의적 접근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덕목 내용 요소를 주제로 하여 유아에게 적합한 활동내용 혹은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표 1> 생명존중 가톨릭 인성교육의 활동(예시)

<Table 1> Activity of Catholic Character Education in Respect for Life (Example)

생활주제	동물, 곤충	활동유형	이야기 나누기 (약한 생명도 소중해요: 개미를 장난으로 밟지 않아요)
내용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할 일을 안다.		
▶ 활동 배경 유아와 함께 산책을 나간 길에 일개미들이 많이 있었다. 한 유아가 개미들을 발로 밟기 시작했고, 일부 유아들이 개미를 빠르게 많이 밟는 것을 놀이처럼 하면서 심지어 서로 경쟁을 하기까지 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 개미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활동자료 개미가 일하고 알을 돌보는 동영상, 개미집 사진, 개미가 해충을 사냥하는 사진 등 ▶ 활동방법 ▪ ‘개미’를 5고개 수수께끼로 도입한다. -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검은색. 다리가 6개. 몸은 머리, 가슴, 배. OO와 배짱이 동화. ▪ 개미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생각해본다. - 개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니? - 그 작은 개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대. 개미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어때? (개미는 대부분 땅 속에 둥지를 만들며, 굴을 파서 수분과 공기가 식물 뿌리까지 퍼지도록 함. 둥지 안으로 가지고 온 벌레나 나뭇잎들이 썩으면 거름이 되어 주변 식물을 비옥하게 만듦. 개미는 주로 정원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먹이로 함) ▪ 개미와 같이 약한 생명을 괴롭혔던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 개미나 다른 작은 곤충을 괴롭혔던 적이 있니? -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니? 기분이 어땠어? (유아의 경험을 비난하지 않도록 한다) - 그런데 만약 우리보다 몸집이 훨씬 큰 거인이. 우리를 장난으로 밟으려고 하면 어떨까? - 몸집이 크거나 힘이 세면 작은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여도 될까? ▪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 나눈다. - 생명은 왜 소중할까? (생물에게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하느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것) - 개미는 지구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구나.			

는 것이다(Choi & Lim, 2013: 7).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교육활동을 제시하는 상당수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은 협의적 접근 방안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유아인성교육의 구체적 요소 중 하나인 생명존중에 대한 활동의 예시는 <표 1>과 같다.

2) 광의적 접근 방안

유아인성교육과 가톨릭시즘의 광의적 접근은 누리과정 체계의 내용범주 및 내용을 가톨릭시즘의 내용과 관련지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과도 유사한 맥락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 및 자연탐구 영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 가능한 가톨릭 인성교육의 내용과 활동의 예시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 가능한 가톨릭 인성교육의 내용(예시)

<Table 2> Contents of Catholic Character education that can be linked to the 2019 Nuri curriculum

누리과정 영역	누리과정 내용범주	가톨릭 인성교육 내용	덕목 요소
사회관계 (건강한 사람)	나를 알고 존중하기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나에 대해 알고,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하는 소중한 사람임을 안다.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긴다.	자아존중 타인존중 사랑 배려 화목 포용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한다.		
사회관계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생활하기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낸다.	자기조절 화목 예절 공동체의식 정의 포용
	사회에 관심 가지기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탐구 (더불어 사는 사람)	자연과 더불어 살기	하느님은 모든 생명과 자연을 소중히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할 일을 안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존중 절약 책임

<표 3> 공동체 의식, 절약 활동의 예시

<Table 3> Example of Sense of Community and Conservation activity

생활주제	절제와 나눔 (성주간 활동)	활동유형	자유놀이(언어): 어려운 친구를 도와요
내용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할 일을 안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 활동 배경

손을 씻고 이를 닦을 때, 물을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는 유아들이 있다. 물 절약을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등의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어려운 친구를 돕고,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 활동 자료

‘맑은 하늘, 이제 그만(이옥재 글/그림, 노란돼지)’ 동화책, 약속 종이, 색연필, 사인펜 등
 (동화내용: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사용하며 지내는 대한민국의 맑음이 가족과는 달리, 식수를 얻기 위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사막을 가로질러 웅덩이 물을 길어 나르는 아프리카 수단 아리안 남매. 지구 건너편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고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함)

▶ 활동방법

(사전활동) 성주간의 의미, ‘절제’의 뜻을 유아와 함께 알아본다.
 ‘맑은 하늘, 이제 그만’ 동화를 듣는다.
 (본활동)

- ‘맑은 하늘, 이제 그만’ 동화의 내용을 회상한다.
 - 맑음이 가족은 물을 어떻게 사용했었지?
 - 아리안은 어떤 상황이었지?
- 만약 내가 아리안이라면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 우리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감사 기도를 드리자.
- 우리가 아리안과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가 아리안과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 물, 전기 아껴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돈을 모아 우물 파기 운동 도와주기 등
- 이야기한 내용을 약속 종이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각자의 약속 종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도 실천한다.

(사후활동) 아프리카 우물 파기 운동을 돕기 위해 저금통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간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톨릭 교육의 관점에서 유아 인성교육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톨릭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종교와 비교하여 인성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은 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 가톨릭은 인간이 가진 죄의 경향보다는 인간성의 긍정과 본질적인 선함, 원죄가 아닌 본래의 은총(original grace)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고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가톨릭의 교리(Imago Dei)는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있다. 둘, 자신이 속한 특수한 문화와 정체성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가톨릭 보편성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른 환경과 다양한 요구에 대한 개방성은 가톨릭시즘의 포괄적 본질을 강조한다.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의 시작이다. 셋, 절제와 검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톨릭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1990년도부터 교황의 문헌을 통해 생태적 책임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국제적, 종교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인간은 하느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섬기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 역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유아에게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생활습관 중 상당 부분은 인성교육과 맥을 같이한다. 유아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삶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영유아 시기는 인성교육을 위한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식 중심이 아닌 실제와 체험 중심, 놀이 중심이어야 한다. 유아에게는 놀이와 학습, 생활과 습관이 분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형식적 교육과정 안에서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실물 교재교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잠재적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주요한 성인의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중요한 이슈이며, 더불어 사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의미’(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19: 30)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특성 및 가톨릭 교육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생명 존중 교육’과 동일한 맥락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을 논의함에 있어서 덕목 범주만을 제시하기보다는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의 실재를 제안하였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나 기존의 연구들이 제안하는 인성교육 덕목들은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덕목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

움이 있다.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인성 덕목의 나열이 아니라 추상적 사고에 한계가 있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인성 덕목을 가르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실체이다.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 유아의 경우 특히 실물 교재교구를 이용한 놀이중심, 유아중심,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생활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덕목의 나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성당의 주일학교 등에서는 경험 및 교재교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덕목 중심의 인성교육 시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종교교육의 측면에서도 말씀을 통한 강론과 복음 선포만으로 유아를 가르칠 수 없으므로, 유아 및 아동을 위한 교재교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은 실천적 측면에서 감사, 행복 교육의 선행연구 교육 방법들을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세상을 선물로 보는 감사의 관점은 가톨릭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중 하나(Groome, Jo trans., 2021: 178)이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협의적 접근과 광의적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므로(Choi & Lim, 2013: 31), 협의적 접근의 활동안 예시 및 광의적 접근의 누리과정 연계 가톨릭 인성교육 내용의 예시를 제작, 보급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활동안 예시들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교육의 상당 부분은 유아와 직접 만나는 교사의 질에 좌우된다.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얼마만큼 전수되느냐 하는 것은 거의 교사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스스로의 영성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Groome(2021: 475)은 교사들의 영적 수련 방법으로 삶의 성사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자연의 광채, 예술의 아름다움과 같은 세상의 위대한 경험, 사랑과 우정, 봄날 아침의 산책, 맛있는 커피 한 잔, 아이와의 포옹, 활기에 찬 대화와 같이 일상에서 만나는 수천 가지 “초월성의 신호들”과 같은 삶의 작은 것들 안에서 삶을 감사하고 거룩해하며 사랑하라는 것이다(Groome, Jo trans., 2021: 475). 교사들의 고귀한 임무는 그들이 ‘유일한 스승(Mt 23:8)’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로만이 아니고 모든 행동거지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계시하는 것이다.

가톨릭계 학교들은 교육이념, 건학이념, 교육목표, 교훈 속에서 공통적으로 가톨릭 정신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학생들이 생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eo, Kim, & Jeong, 2005: 8). 인성교육이 각 학교나 기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실행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성교육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와 활동자료를 담은 프로그램이 제작,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전국의 가톨릭 유치원들에서 가톨릭 유아 인성교육 활동 예시를 응모 받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 연구는 유아 인성교육에 있어 가톨릭의 강점을 밝히고, 가톨릭의 인성교육적 요소를 누리과정과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추후 가톨릭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실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rron, R. *Catholicism: A Journey to the Heart of the Faith*. 전경훈 옮김 (2019). 가톨릭시즘 보고 듣고 느끼는 가톨릭. 서울: 생활성서사.
- Cho, B. G. N. (2008). Peer relationship as culture of adolescents in the Catholic Church. *Journal of Religious Culture*, 5, 153-184.
- Choi, M. S. & Lim, E. Y. (2013). The character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 of young children to improve NURI curriculum for three to five year old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1-36.
- Groome, T. H. *Educating for life: A spiritual vision for every teacher and parent*. 조영관, 김경이, 우정원 옮김 (2021). 생명을 위한 교육: 모든 교사와 부모를 위한 가톨릭의 영적 비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Jang, Y. J. (2018). The Cultural Themes of Private Tutoring for Children: Focusing on Learning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3), 113-127.
- Jeong, C. W. (2017). Towards a Practical Model for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Life Stages.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6(1), 141-168.
- Jeong, R. Y. (2005). *A Study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the Catholic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 Jo, Y. H. (2009). *A study on academic life and cultur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RR 2009-08-2).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D. S. & Kim, K. I. (2019).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atholic kindergarten teacher about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9, 137-170.
- McCullough, M. E., Tsang, J. A., & Emmons, R. A. (2004). Gratitude in intermediate affective terrain: links of grateful moods to individual differences and daily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295-309.
- McDonagh, S. (1994). *Passion for the Earth*. London: Orbis Books.
- Park, J. S. & Shin, Y. L. (2013). Young children's morality shaped by the Catholic mothers' maturity in faith, religious upbringing, and satisfaction in parental role. *Journal of Life-span Studies*, 3(2), 39-50.
- Song, Y. M. (2013). The ecological Human way & The ecologist, Jesus way - Study on ecological Human view in Christianity. *World and Word*, 34, 1-32.
- Yu, K. C. (2000). Environmental Perception in Church Literature: Ethical Theological Reflections on Church Literature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Pastoral research*, 8,

69-108.

Yun, H. J. & Cho, B. H. (2011). The effects of a cognitive behavioral gratitude program on gratitude disposition and happines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0(1), 1-17.

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2009). *Early Childhood Education Advancement Pla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교육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19). *2019 Nuri curriculum Manual*.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서경돈, 김정희, 정일환 (2005). 해방 이후 가톨릭교회의 학교 인성 교육. 경북: 한국가톨릭 신학회. (Translated in English) Seo, K. D., Kim, J. H., & Jeong, I. H. (2005). *Character education of Catholic school after liberation*. Gyeongbuk: Korean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원종철 (2011). 가톨릭 교육과 인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Won, J. C. (2011). *Catholic Education and Human*. Seoul: Catholic University Press.

한국천주교주교회의교육위원회 (2011). 한국 가톨릭 유아교육 지침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Catholic School Education Guide* (2011). The Korean Catho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Guide. Board of Education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유아교육분과 (2008). 가톨릭 유아교육과정. 서울: 들숨날숨. (Translated in English)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the Korean Catholic Women's Association (2008). *Catho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Seoul: Deulsumnals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12.28.). 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13). *Gravissimum Educationis: The Second Vatican Council*.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